

人間學의 對象과 그本質的 制限 (6)

金基錫

哲學은 實在의 學이 되어야한다. 實在를 생각한다고 해서 時間을 버서난 어떤 久遠한 實在를 想定하는 觀念的 構成에 떠러져서는 안된다. 時間에 잇서서 주어지는 자기를 부단히 限定하면서 주어지는 現實的인 存在 또 그 세계를 그 根源性에 잇서서 理解하지 안허서는 안된다. 그 자신 한 개 存在인 人間에 대한 反省에서 出發하여 人間을 그 속에 가진 實在의 世界 現實의 世界란 것을 그 根本構造에 잇서서 解明하지 안허서는 안된다.

認識論, 價値論은 모도 哲學에 잇서서 한 개 크다란 業蹟을 남겼다. 그러나 哲學은 認識論, 價値論에 언제까지던지 머물러 잇슬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한 개 새로운 領野에로 흘러야한다.

認識은 그 자신 어느 意味의 思惟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思惟는 단순한 認識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行動이나 實□이 나가 단순한 認識을 意味하는것은 아니다. 人間의 『生』이 이 思惟와 行動을 그 속에 싸고 흐르는 理解의 世界, 體驗의 世界임을 想起하라. 人間의 -生-을 그 現實的 地盤으로 하는 哲學이 理性的 限界 및 그 能力을 論하는 認識論 가튼 것에 그치고 말 것인가. 哲學은 이 認識論을 그 속에 가진 理解의 學體驗의 學이 되지 안허서는 안된다.

우리들은 存在에 대하여 價値란 것이 잇슴을 안다. 存在가 既 存的體系의 意味를 가짐에 反하여 價値는 可能的 體系의 意味 가튼 것을 가진다. 그리고 그 자신 存在인 人間은 存在의 世界로부터 價値의 世界 規範의 世界에 옮겨 가려는 누를 수 업는 鄉愁에 물린다. 이 한 개 久遠한 鄉愁를 사람들은 價値義論이라고 부르면서 人間이 가지는 一切의 文化活動이 모도 이 價値意識이 란 것에 잇서서 □□育成 된다고 가르친다.

우리들은 人間이 이 價値의 世界에 대한 眞摯한 志向을 가졌고 또 社會이 니 歷史이니 하는 이 價値實現의 場所 및 途程이 [라야] 한다는 것을 張□한

다. 그러나 存在와 價値가 서로 갈리어 잇스면서 人間이 그 사이를 彷徨하는 것이 아니고 본대 存在 속에 價値가 잇고 價値속에 存在가 잇는 것이 아닐가. 사람들이 價値의 世界란 것을 마치 『플라톤』이 『이데아』의 世界와 가튼 것으로 생각하하여 그것을 存在의 彼岸에 그릴것이 아니고 存在로서의 人間の 現實性을 自覺하는데서 도로혀 그 자신 價値의 體系 속에 들어잇음을 發見하게 되는것이 아닐가.

哲學은 어디까지던지 人間の 存在에 대한 理解로부터 그 價値性 또는 規範性을 規定하지 안혀서는 안된다. 哲學은 어디까지던지 存在로서의 人間の 現實을 기피 省察하는데 잇서서 人間生活의 理念 및 그 根本 課題를 示, 究明하지 안혀서는 안된다.

實在의 學으로서의 哲學은 그 자신의 地盤인 人間을 反省하는 理解의 學, 體驗의 學에 나서야 하고, 理解 또는 體驗의 學으로서의 哲學은 이제 다시 人間을 世界內의 存在로 發見하면서 이 世界 속에서 人間이 자기를 어떠한 自覺해야 한다는 人間の 理念의 學, 및 人間の 課題의 學에 나서야한다. 人間の 學으로서의 哲學의 再構成. 우리들은 여기서 人間中心主義, 人間至上主義를 내어 걸러는 것은 아니다. 人間을 最高의 實在로 보면서 모도가 이 人間 앞에 와서 꾸러야 하고 『시중』을 드러야 하고 그리하여 人間이 一切의 存在에 대한 支配, 統一을 掌握한다고 보려는 것은 아니다. 過去의 主知主義가 精神이니 物質이니를 부질없이 根源的 實在로 내어 세우는데서 저절러 노흔 巨大한 過誤를 想起하라. 우리들은 이 實在로서의 精神 또는 物質이 한 개 觀念的 虛構에 지나지 안는다고 해서만 그것에 反對하는 것은 아니다. 存在의 世界를 『피라미트』가튼 것으로 보고 이 存在의 世界우에 어떤 『하나』가 君臨한다고 보려는 態度. 이것은 存在를 그 現實的 聯關에 잇서서 보지 못하고 어떤 『하나』의 支配決定을 是認하는 神學的 思辨에 지나지 안는다. 人間은 어디까지던지 그 자신 存在의 世界를 構成해야 한다. 人間 아닌 만흔 存在로 더불어 어느 意味의 同一한 途程을 거러가면서 그 자신 存在의 世界를 構成해야한다.

人間은 무론 歷史的, 社會的, 存在인데서 자기를 단순한 自然 가튼 것으로 부터 빛나게 구별한다. 그러나 人間은 依然히 世界內 存在가 되지 안혀서는 안된다. 世界 속에서 그 자신의 途程을 겸손하게 걸어가는 存在가 되지 안혀서는 안된다. 남을 부단히 理解해야하고 남을 부단히 育成해야하는 人間자신의 尊嚴한 課題. 이 한 개 尊嚴한 課題를 맡으면서 그 자신을 實在의 世界 運動의 世界로서의 宇宙的 構成 속에서 發見하는 아하 이 눈물겨운 存在인 人間이란 무엇일가. 人間存在의 根本理念에 대한 根源的 解明. 여기서 우리

들은 哲學本來의 眞實한 原野에 나서는 것이 아닐가. 實在 및 現實에 대한 根本理解를 그 課題로 하는 哲學의 眞實한 原野에 나서는 것이 아닐가.